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정홍근 심의관, 신민철 사무관
(044-200-2132, 2135)

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집행위 부위원장장 접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6일(월) 오후 「페데리카 모게리니(Federica Mogherini)」 유럽연합(EU)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집행위 부위원장을 접견하고, 한-EU 양자관계,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※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싱가포르 ARF(아세안지역안보포럼) 참석 직후 8.5-8.6간 방한

- 이 총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한-EU 자유무역협정(FTA)을 바탕으로 한-EU 간에 활발한 교역, 투자 및 인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, 한국과 EU는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환경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 등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.

- 아울러, 한국정부는 환경,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에서 국제규범 준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,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최빈국에서 탈출한 한국의 경험을 살려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말하고,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한국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.

- 모게리니 대표는 한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, EU가 한국의 첫 번째 투자파트너인 동시에 세 번째 무역파트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
- 이어 한-EU FTA는 EU가 아시아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, EU는 한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바탕으로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등과 FTA를 확산시켜나가고 있으며, 앞으로 한-EU FTA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모게리니 대표가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음에 사의를 표하면서,
 - 앞으로도 모게리니 대표의 리더십 하에서 EU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 과정에서 계속 지혜로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
-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당사자 간 해결, 대화와 외교,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며 다자간 협력체제가 유용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
 - 이어 EU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리더십에 함께할 것이며,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기꺼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